

# 스물 여덟, '부끄럼 없는' 詩와 삶을 기리다

## ‘운동주 서시 문학상’ 제정...시인 운동주와 문학세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운동주의 ‘서시’〉

**1917년 북간도서 출생**  
**유년시절부터 문학의 꿈**  
**연희전문 졸업후 日 유학**  
**후쿠오카 형무소서 옥사**  
**한국인 가장 좋아하는 시인**



학창시절의 운동주(오른쪽 위)와 친구들.

주는 유년시절부터 ‘어린이’ 등과 같은 잡지를 구독하며 문학에 대한 꿈을 키웠다.

1938년 연희전문 문과에 입학한 운동주는 종로구 누상동의 소설가 김승(1909~1988) 집에서 하숙을 한다. 당시 문우이자 후일 평론가로 문명을 날렸던 정병욱(1922~1982·전 서울대국문과 교수)이 하숙을 함께 했던 친구다. (정병욱은 운동주의 필사본 ‘바람과 구름과 별과 시’를 보관했다가 유족에게 전달했다)

“운동주와 정병욱은 아침이면 인왕산 종턱까지 산책을 했다고 한다. 식사를 하기 전이라 그 시간은 정신적으로 매우 명징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두 문우는 언덕을 오르며 시민적 조국의 암울한 현실과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자 했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아는 빛나는 시들이 이 시기에 쓰여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운동주문학관 문화해설사 한경자 씨는 그렇게 설명했다. 이어 한씨는 “‘별해는 밤’, ‘자화상’, ‘쉽게 쓰여진 시’ 등이 그 즈음에 탄생했다”며 “이 같은 사실은 공간과 예술의 상관관계를 엿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연희전문을 졸업한 운동주는 1942년 도쿄 릿쿄대 영문과에 입학한다. 고종사촌이었던 송몽규도 일본으로 유학을 함께 떠난다. 그러나 1944년 두 사람은 약화일로 치닫는 전황속에서 ‘치안유지’ 위법으로 체포된다. 그리고 전정기 막바지에 이르던 1945년 2월 운동주의 고향집으로 그의 사망소식이 전해진다.

해방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운동주는 그렇게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한다.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자 떠났던 유학의 여정에서 운동주는 그렇게 푸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 일설에는 강제로 투여된 의문의 주사가 시인이었다고 전해진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운동주 시인의 ‘서시’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한 편이다. 물론 많은 이들은 운동주를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 꼽기도 한다. 그의 시에는 부끄러움이 실종된 오늘의 세대를 향해 준엄히 꾸짖는 ‘죽비’와도 같다.

(문학)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운동주 서시문학상 제정을 계기로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문학 및 문화사업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운동주 서시 해외 작가상’도 제정해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글의 정신을 잊지 않고 작품 활동을 하는 시인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된 ‘운동주 서시 문학상’과 ‘운동주 서시 해외 작가상’은 운동주 시인의 시 정신을 구현하고 사회에 널리 확산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소재한 운동주문학관. 왼쪽 유리관 안 모형물은 용정 생가에서 가져온 우물물.

## 광주일보·‘시산맥’ 제정...상금 1000만원 해외 작가상은 모국어 사랑하는 시인 대상

### 운동주 서시 문학상은

이번에 제정된 ‘운동주 서시 문학상’은 운동주 서시문학상 제정위원회와 계간 ‘시산맥’에서 주최를 하며, 상의 운영은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맡는다. 1회 운동주 서시 문학상 제정위원장은 유안진 시인이 맡았다.

이 상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부끄럼’ 없이 살고자 했던 시인 운동주의 시 정신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금은 1000만원.

구체적으로 등단 15년 이상 시인으로 제

한하며 작품은 2015년 계간 겨울호(월간 9월호)~2016년 가을호(월간 8월호) 문예지에 게재된 시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는 9월에 심의위원회 추천한 시인의 작품을 10월 중 본심을 진행하며 시상식은 매년 11월에 한다.

한편 해외 작가에게 주는 ‘운동주 서시 해외 작가상’(상금 300만원)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글의 정신을 잊지 않고 시를 쓰는 시인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국내외 신춘문예와 문예지에 신인상으로 등단했거나 시집 발간, 문예지에 작품 게재 후 활동하는 시인도 포함된다. 해외 작가상은 운동주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지난 7일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운동주 서시 문학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일보 이홍재 주필(왼쪽에서 세번째)과 문정영 시산맥 대표가 협약서를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시인의 시정신과 함께 모국어를 사랑하는 해외 시인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응모 작품은 5편 이상 10편 이내로 2015년 겨울호(월간 9월호)~2016년 가을호(월간 8월호) 문예지에 게재된 작품,

그 기간에 발간한 시집 속의 작품 또는 신작시를 대상으로 한다. 보낼 곳은(poemmtss@hanmail.net), 마감은 9월 30일이다. 문의 062-220-0624, 02-764-872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달 열렸던 유·스퀘어 예술시장 모습.

〈유·스퀘어 제공〉

## 유·스퀘어 예술시장 밤에도 개장 예술가 프리마켓...8월까지 셋째주 금·토요일

유·스퀘어가 2층 야외광장에서 낮에 열던 예술시장을 밤에도 추가로 개장한다.

유·스퀘어가 새롭게 선보이는 ‘한여름밤의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8월까지 셋째주 금요일은 오후 6시30분부터 밤 10시, 토요일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알리고,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유·스퀘어가 마련한 프리마켓이다. 작가들이 직접 만든 비누, 옷, 팔찌, 인테리어 소품과 예술품들

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누구나 셀러로 참여해 작품을 판매하거나, One Day 작업 공방을 열어 기술을 나눌 수 있다. 또한 공연을 원하는 밴드나 예술가들이 열리는 날 야외광장 무대에 설 수도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유·스퀘어문화관 홈페이지(www.usquareculture.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담당자 메일(sekmax27@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는 매일 1~10일까지 받고 있다. 문의 062-360-843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장음악회 ‘남성 솔리스트 앙상블’

### 내일 풍암지구 물빛 공원...성악가 10명 출연

테너, 바리톤, 베이스... 남성 성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한달에 한번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콘서트를 열고 있는 ‘광장음악회’가 남성 성악가 10명을 초청, ‘남성 솔리스트 앙상블’ 공연을 갖는다. 16일 오후 7시30분 광주 풍암지구 노대동 물빛 공원.

첫 공연은 남성 앙상블로 선보이는 ‘빨간 구두 아가씨’, ‘아빠의 청춘’ 등 흥겨운 추억의 가요 메들리다. 이어 바리톤 문주환씨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더 이상 날지 못하리’를 선보이며 테너 이상화씨가 ‘금단의 노래’를 들려준다.

남성 앙상블의 뮤지컬 ‘남태평양’ 중

‘여자 보다 귀한 것은 없네’, MBC ‘무한도전’에 등장했던 ‘우리들은 미남이다’는 유쾌한 무대이며 김제선·장윤석씨가 듀엣으로 ‘영원이란 시간조차 부족해요’를 부른다.

그밖에 바리톤 염종호씨가 ‘내마음 전할 수 있다면’, 정찬경·김태호씨가 정지웅 곡 ‘향수’를 부른다.

소프라노 정마리아씨가 특별 출연해 ‘이태리 거리의 노래’를 들려주며 마지막 곡은 ‘푸니쿨라 푸니쿨라’가 장식한다. 피아노 반주는 나원진씨다.

8월 공연은 오는 20일 ‘여름밤의 재즈’를 주제로 열린다. 문의 010-2038-3522.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매일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낭송 콘서트

**시·음악·연주와 함께하는 금남로 연가**

- ◆일시 | 2016년 7월 27일 오후6시
- ◆장소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주최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주관 | 광주 서구문화원(기획:김정희 시인)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연선 1층)

산업환경기기 & 기계부품 제조전문업체

# 최고를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 YHB ECO

창사 29주년

www.yhb.co.kr

**YHB 전기 집진기**

생활주변 지긋지긋한 연기, 냄새를 전기집진기가 확 제거해 드립니다.

직화구이 연기, 냄새,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연기흡입 → 청정공기배출

10분에 1번 자동 에어세척

직화구이 연기, 냄새 제거 95%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 주의보 발령/대기오염 규제 실 대응 해결책!!

전국 각 지역 지점/대리점 모집

광주영업소 **무등산업**

T.062)371-7095 F.062)375-3409

추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기념 특별가 공급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YHB (주)YHB ECO / 주식회사 YHB / (주)YHB 토탈서비스**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24시간 내 A/S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4(오선동) ☎062-952-6633 **익산공장**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1(용제동)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shh@yhb.co.kr / eco6400@hanmail.net